

2025년도 제2호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사랑의 메⁺아리



교황청 재단



“죽음과 함께
고난의 시간은 끝이 납니다.
죽음이란 삶에서 이룬 것들을
최종적이고 확정적으로
완성한다는 의미입니다.”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발행 고통받는 교회 돕기 한국지부 ACN KOREA | 전화 02-796-6440

홈페이지 www.churchinneed.or.kr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337호

이메일 info@churchinneed.or.kr | 팩스 02-796-6439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004-459234 | 예금주 (사)고통받는교회돕기한국지부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해마다 엄숙한 재의 예식과 함께 사순시기가 시작됩니다. 이때는 전례력으로 대림시기와 더불어 우리 믿음이 굳세지는 ‘고행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참회와 고행의 보속하는 정신’으로 지내야 합니다. 진실하고 참되며, 마음에서 깊이 우러나오는 방식으로 말이지요.

축복 의식과 재를 엮는 의식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재를 엮는 의식 때 하는 말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완전히 자연적인 차원과 초자연적인 차원의 죽음을 구별해야 합니다. 자연적인 차원의 죽음은 장애물이며, 인생의 가장 좋은 날들조차 그늘지게 만들 수 있는 침울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관점에서 보면, **죽음과 함께 고난의 시간은 끝이 납니다. 죽음이란 삶에서 이룬 것들을 최종적이고 확정적으로 완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선악에 대한 자유를 행사하는 마지막 순간으로, 이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공덕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우리 개인의 공덕입니다. 이 공덕으로 행복, 영광, 평화는 영원까지 반영됩니다. 절망하거나 자연적인 차원으로 내려간 사람은 죽음 앞에서 고통받고 두려워합니다. 초자연적인 차원으로 올라간 사람도 고통은 겪겠지만, 공덕이 가득한 방식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두려움 없이 거룩한 평화 속에서 죽는 은총을 기대하게 됩니다. 죽음은 우리 삶과 함께합니다. 사실 죽음은 날마다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물학적인 능력의 일부는 날마다 소실되고 있습니다. 날마

다 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고, 날마다 무언가 사라져서 결코 이 삶으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죽음은 삶에 동반하지만, 초자연적인 관점에서 보면 삶은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말하는 이 순간, 현재의 순간은 이미 과거가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삶 전체가 진지해집니다. 그래야만 사람은 통찰력과 지혜를 갖고 생각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희망에서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이 회년에 사순시기를 보내는 여정 내내 특별히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올바른 의도로 그 성스러운 문을 통과해야 하며, 지혜롭게 죽음에 대해 생각함으로써 삶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사실 시간은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성장하고, 우리 공덕을 키우는 기회입니다. 또한 영원한 보상을 위해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안다는 사실은 우리 희망을 되살리고, 선행을 하도록 자극하며, 기쁨을 키워줍니다.

매 순간은 사랑을 향한 되돌릴 수 없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선물로 주어진 하느님의 자비입니다. 우리는 우리 세례와 믿음에 맞게 시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도록 우리를 일깨우는 것이 재의 예식과 사순시기 전례입니다.

Maurice Kard. Piacenza

ACN 재단장 마우로 피아첸차 추기경



드디어 제대로 된 성당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도 동부의 손탕에는 진흙으로 만든 작은 경당이 있었는데, 상태가 열악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모인 23,000,000원으로, 이제 새로운 성당이 축성되었습니다.

링크도 신부가 이런 글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손탕 주민들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하느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이들의 꿈이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이지요. 저는 하느님께 기도하고 미사를 봉헌할 수 있는 성당을 갖게 되어 신자들과 함께 기쁨과 행복을 느낍니다. 신자

들은 후원자들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기꺼이 도움을 주신 모든 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 신자들은 이 새로운 성당이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헌신을 위한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성당 건립으로 사람들은 더욱 긴밀히 연결되었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서로 손을 맞잡고 협력했습니다. 마을 성당이 단 3개월 만에 지어졌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ACN에서 일하기 시작한 1980년 9월 당시, 동유럽에서는 여전히 철의 장막이 굳건했고, 많은 주교, 사제, 평신도가 신앙으로 인해 박해받았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카지미에시 스빈텍 추기경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1944년에 시베리아의 악명 높은 스탈린 수용소에서 10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80년대 말엽에 그가 ACN 본부를 방문하셨을 때, 우리 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시면서 하신 강론 말씀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이 지상의 상황이 지옥과 같을지라도, 결코 자신의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었지요.

10년 형이 다 끝나갈 무렵, 한 KGB 장교가 놀라서 물었다고 합니다. 살아서 나가기 힘든 수용소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냐는 장교의 질문에

그는 하느님이 자신을 살려주셨다고 대답했습니다. 장교는 하느님이 누구인지 묻더니 임박한 사형 집행 대신, 그에게 나가도 좋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지금의 벨라루스 핀스크로 돌아온 그는 다시 추방 위협을 받았지만, 착한 목자로서 고통받는 신자들을 위해 계속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하느님의 헌신적인 종인 스빈텍 추기경은 2011년 7월, 9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항에 직면하면서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게 주저될 때, 카지미에시 스빈텍 추기경의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ACN 수석대표 레지나 린치 *Regina Lynch*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신다는 것..

“나는 종종 전쟁 중의 군중 사제가 된 기분입니다.”

거의 20년째 멕시코에서는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호 상납금 갈취, 살인, 납치가 일상이며, 지금까지 4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성직자들에게도 가장 위험한 나라에 속합니다. 지난 18년 동안 40명의 사제가 살해되었습니다.

호세 필리베르토 벨라스케스 플로렌시오 신부는 이미 두 번의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한 번 납치된 적도 있지요. 지금까지도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칠판싱고-칠라파교구가 자리한 게레로 주에는 최소 16개의 범죄 조직이 있습니다. “이곳은 전쟁 상황과 비슷합니다.” 라고 호세 신부는 말합니다. 심지어 폭발물을 실은 드론이 고지대 마을 위로 떨어졌고, 주민들은 피신했습니다. 신부가 고백하기를, “나는 종종 전쟁 중의 군중 사제가 된 기분입니다.”

교회가 폭력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인다는 이유로 마약 카르텔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로 교회는 범죄 조직들 사이에 가로놓이는 처지가 되기도 합니다. 지



미사를 집전하는 호세 필리베르토 벨라스케스 플로렌시오 신부

난해에는 수 개월간 주민들을 몹시 괴롭히던 두 범죄 집단이 충돌하자, 교회는 평화 협정을 중재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당국으로부터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당국은 우리를 조직범죄와 연결 지었지요.” 호세 신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멕시코의 용기 있는 사제들에게는 우리의 재정적인 도움과 함께, 이런 위험한 직무 수행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칠판싱고-칠라파의 사제들과 12곳이 넘는 멕시코의 다른 교구의 사제들에게 정기적으로 여러분의 미사 예물을 전달합니다. 이들이 계속 여러분의 도움을 기대해도 될까요?

목숨을 건 기도

파키스탄에서는 교회에 대한 공격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노한 군중이 교회 건물을 공격하는 일도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신자들 보호를 위해 안전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2023년 8월, 자란왈라에서는 흥분한 폭도들이 교회 수십 곳과 그리스도교인 주택 수백 곳에 불을 질렀습니다. 파키스탄의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이런 공격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세의 아카쉬 바쉬르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2015년, 자살 폭탄 테러범이 신자 600명이 모인 유하나바드의 교회에 침입하기 전에 그는 테러범을 제압했습니다. 테러범의 폭탄이 터지면서 아카쉬는 목숨을 잃었지만, 무수한 사람들을 구했지요. 파키스탄의 그리스도인들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신학교



경찰 보호를 받는 유하나바드의 성 요한 성당

은 아카쉬 바쉬르의 조기 시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을 가능한 한 예방하기 위해 ACN은 파키스탄에 있는 교회, 수도원, 신학교가 안전 조치를 시행하도록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슬라마바드-라왈핀디교구의 차크리에 새로운 교회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 울타리 설치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신자들이 안전하게 기도할 수 있으려면 49,000,000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빈곤

잠비아에서 온 SOS

신부의 방문에 기뻐하는 젊은 신자들

열악한 길에서의 힘든 여정



잠비아는 원래 주로 그리스도교를 믿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가톨릭교회는 종파들의 공격적인 개종 활동과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슬람 확산 현상에 직면해 있습니다.

잠비아의 북동쪽 끝, 탄자니아 국경에 자리한 카사마 대교구가 바로 이런 지역입니다. 스탠포드 무람바 신부의 보고에 따르면, “오순절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슬람으로 인한 문제도 있지만, 복음과 대립하는 전통적 관행도 문제입니다. “마녀사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종종 요술을 부린다는 그릇된 비난을 받기도 하지요. 그래서 학대당하거나 때로는 돌로 맞기도 합니다.” 라고 프란시스 초차 신부는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제가 개입해야 합니다. 변화를 이루려면 많은 교육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5년 동안 계속 본당이 생겨났습니다. 이그나티우스 차마 대주교가 한 말 때문이지요. “사람들과 더불어 신앙의 길을 걷는 유일한 방법은 사제들이 사람들 곁에 가까이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리가 엄청나게 멀니

다. 마을을 최대 60곳 돌보아야 하지요. 사제들 대부분은 정기적으로 신자들을 방문하기 위한 차량이 없습니다. 사제들의 정기적인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는 신앙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차마 대주교는 사제 30명에게 열악한 도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오토바이를 마련해 주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몹시 가난하며, 대교구는 이를 위한 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주교는 이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토바이 한 대당 3,300,000원씩, 총 99,000,000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잠비아의 이 지역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쿠바의 수도자들 - 행복한 복음 전달자들

든 것이 부족하며, 일상은 생존을 위한 유일한 싸움터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지속된 사회주의 정부로 인해 복음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곳에서는 여성 수도자들의 따뜻한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성 수도자들 역시 경제 위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성 수도자들에게 24,000,000원의 생계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700,000원이면 여성 수도자 한 명이 ‘희망의 징표’가 될 수 있도록 1년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희망 없는 이들을 위한 희망의 표징

쿠바 올긴교구의 에밀리오 아랑구렌 에체베리아 주교는 여성 수도자들의 존재를 ‘희망의 징표’라고 일컬으며 말합니다. “모든 시민이 여성 수도자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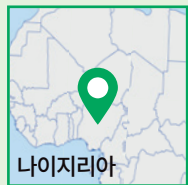
이 교구에서는 수도회 13곳에서 파견된 여성 수도자 34명이 어르신과 환자들을 돌보고, 가정들을 챙기며, 외롭거나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쿠바에서는 많은 이들이 희망을 잃었습니다. 심각한 경제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모



신학생들

용감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지난해 말에 슬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12월 26일, 그리스도 교의 첫 순교자인 성 스테파노 축일에 나이지리아의 한 사제가 거리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더군다나 2024년에는 나이지리아에서 수많은 성직자가 납치되었습니다. 권력을 장악하려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부르키나파소에서 상황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두 나라에서는 성소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납치된 사제 중에는 나이지리아 남부 아우치교구의 소신학교 학장도 있었습니다. 10월 27일 저녁, 무장한 남자들이 건물에 들어와 신학생 두 명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토마스 오요드 학장은 납치범들에게 신학생 대신 자신을 잡아가라고 제안했습니다. 납치범들은 두 신학생을 풀어준 뒤, 신부를 덤불 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11일 후, 토마스 오요드 학장도 무사히 풀려나면서 이 사건은 다행히 좋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신체와 생명에 대한 위협조차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이지리아 젊은이들을 막지 못합니다. 심각한 폭력 피해를 당한 마쿠르디교구의 윌프레드 아나그베 주교의 보고에 따르면, 실제로 ‘성소 붐’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교구에도 수많은 성소자가 있습니다.

1. 밝은 표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테러 공격을 당한 파다웅구르마교구의 예비 사제들
2. 가족이 추방된 신학생들

부르키나파소에서도 비슷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와가두구대교구에 속한 코소긴의 교구통합 신학교는 사제 지망생들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너무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공용 공간을 숙소로 전환해야 하지요. 현재 281명의 청년이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중 40퍼센트에 이르는 청년은 테러범들이 장악한 지역 출신입니다. 가이 사신 학장의 말에 따르면, “성소자의 수가 많다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훌륭한 성소 사목 관리 덕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소자들이 주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분명하게 증언하는 사람들을 많이 마주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세속화가 심각한 유럽에서는 성소를 일깨우는 일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질주의적 맥락에서 보면, 유럽 사람들은 더는 하느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반면, 부르키나파소와 나이지리아에서 사제가 되고자 하는 청년들은 하느님께 모든 것을 기대합니다. 코소긴의 신학생 중 한 명인 가엘 세그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생의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내 안에서 시작하신 것을 완성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신 총장이 덧붙이기를, “사제 지망생들이 실제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으며, 복음이 이들의 양식이자 열정이라는 참된 신앙을 증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지역 교회로서는 수많은 젊은 성소자들의 양성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나이지리아와 부르키나파소에서 용감하게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가엘을 비롯한 다른 예비 사제들이 2025년에도 여러분의 도움을 기대해도 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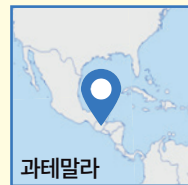
부르키나파소



피안드리 주교와 가족처럼 지내는 엘 페텐 주민들

희망은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마리오 피안드리 주교는 지난해에 사제서품 5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77세의 이탈리아 살레시오회 신부인 그는 16년간 과테말라 북부 엘 페텐 대목구장으로 재임했습니다. 이 지역은 과테말라 영토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합니다.



과테말라

이 지역의 일부 본당은 다른 교구들의 본당에 비하면 규모가 크지만, 인구 밀도가 낮습니다. 대부분 토착 마야족으로 구성된 지역 주민들은 극심한 빈곤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약 거래, 대지주에 의한 착취, 폭력, 부패, 불평등, 최근 급등한 국내 이주를 초래한 일자리와 기회 부족 등은 일부 문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피안드리 주교는 이곳을 ‘축복받은 땅’이라고 말합니다. “열렬한 마음을 지닌 채, 첫 선교사이신 예수님을 따라 날마다 삶을 봉헌할 자세가 된 사제에게 이곳은 훌륭한 선교지입니다.”

이 지역 인구의 70퍼센트가 30세 미만입니다. 주교는 특히 마약 중독자, 알코올 의존자, 청소년 갱단원, 잡범과 잘못된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주교는 증언하기를, “이 일을 하면서 갖는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내 삶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유일한 이유입니다.”



“성소와 선교는 절대 중단되지 않습니다.”



“봉헌된 사람은 하느님과 사람들을 위해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피안드리 주교: “사제가 된 것은 내게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2025년 희망의 순례지들

젊은 사제로서 그의 첫 부임지는 니카라과였습니다. “드디어 막 사제 서품을 받고서 중앙아메리카에 왔습니다. 사제로서 ‘밀월 시기’의 모든 열정, 기쁨, 헌신을 이곳에서 체험했지요. 이곳에서 지내던 10년 동안은 군대와 게릴라 간에 내전과 무장 혁명이 발생했던 아주 힘들고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1984년에 이 나라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나를 추방했지요.” 그래서 그는 과테말라에 오게 되었습니다.

피안드리 주교는 사제로서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었던 지난 50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고합니다. “삶의 마지막 구간에 들어선 내게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나의 인생, 사랑, 임무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유일한 이유입니다. 나의 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다른 삶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나는 살레시오회 수도자이자 사제로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삶과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미사 때마다 나의 첫 미사 때의 느낌을 떠올립니다. 하느님과 여러분 모두에게 무한한 감사를 느낍니다! 50년 동안 사제이자 선교사로서 살아온 나는 이제 하느님의 손에 나 자신을 맡기며 아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아뢰니다.”

“지난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 **‘예, 주님!’**”

후원자들의 편지

선교사업을 도울 수 있는 기회

ACN이 저게 어떤 의미인지 적절히 표현할 말이 떠오르지 않네요. 어릴 때부터 저는 선교에 대한 꿈이 있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그러나 ACN을 통해 소액 기부로 전 세계 선교사업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특별히 ACN을 통해 제가 미사를 봉헌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신부님들이 제 미사 지향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약속한 제 미사 예물은 선교 지역의 사제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기도 속에 항상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독일의 후원자

희망

제가 ACN을 후원하는 이유는 소식지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의 활동에 깊은 인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ACN이 돕는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과 상황들을 보고, '인간이 인간에게 행하는 비인간성'에 대해 읽으면서 상당히 낙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ACN의 활동을 통해 다시 희망을 품습니다.

영국의 후원자

예상치 못한 힘을 준 소식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랑의 메아리>는 제게 버틸 힘을 줍니다. 저는 최근에 남편과 사별했는데, 우편함에서 ACN 소식을 발견했을 때 저는 새로운 힘을 얻었으며, 다시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그리고 또 슬프기도 하지만, ACN의 가족이 되어 기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브라질의 후원자

한국지부 소식

➡ ACN 한국지부는 2025년 사순시기를 맞아 다음과 같이 두 곳의 본당을 방문하였습니다. 사순 제1주일이었던 3월 8~9일에는 서울대교구 압구정 성당을, 이어서 사순 제2주일인 3월 15~16일에는 서울대교구 역촌동 성당을 찾아갔습니다. 특별히 한국지부는 미사를 봉헌하며 ACN과 2025년 사순·부활 캠페인인 '희망의 증거자, 고통받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CN 한국지부장 박기석 사도요한 신부는 강론 중에 고통받는 전 세계의 상황들을 알렸습니다. 특히 부르키나파소의 사례를 소개하며,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땅에서 존속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을 호소했습니다.

**사랑의메아리
2025년 3호는
4월 말에 발행할
예정입니다 ♥**



압구정 성당



역촌동 성당 ①



역촌동 성당 ②